

영산포 흥어의 거리 전남 첫 '자율상권구역' 지정

임대로 제한·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 적용 혜택 점포 5곳 중 1곳 공실... 쇠퇴한 상권 되살리기 박차

나주의 대표 상권인 '영산포 흥어의 거리'가 전남 지역 '자율상권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나주시는 영산포 흥어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영산동 일원(영산3길 29-1)이 전남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상생 협약으로 정한 수준에서 임대료 제한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등이 적용된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영산포 선창부터 나주시립도서관, 영산파출소 등지로 이어진다. 흥어의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흥어의 가공·생산·유통산업이 집적화된 구역이다.

하지만 소비가 침체하면서 해당 구역 점포 231곳 가운데 42곳(18%)이 공실로 남아있다.

이처럼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상권 상생·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권구역이 50% 이상이면서 상가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해서 감소한 구역이 해당한다. 도·소매 점포 100곳 이상, 상인·임대인 동의율 3분의 2 이상, 상생 협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영산동 상인들은 지난해 8월 영산포 자율상권 활성화 준비위원회를 꾸린 뒤 올해 3월 20일 '나주시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상인들은 상권 침체와 공실 문제, 임대료 안정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준비해 왔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영산포 흥어의 거리



전남 첫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나주 영산포 흥어의 거리에서 흥어 판매·유통점포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는 전남도 주관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졌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국비 50%·지방비 50%)을 지원받게 된다.

나주시는 '영산강 15일의 기적 흥어의 꿈, 대한민국 최대의 K-FOOD 글로벌 상권'을 주제로

2025년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이를 위해 영산포 자율상권협동조합과 함께 '자생적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상권 경쟁력 확보', '주변상권 융합 지속가능한 경영'을 전략으로 한 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특산물인 속성 흥어를 소재로 한 특화상품 개발과 영산포 K-FOOD(케이푸드) 테마거리 조성, 영산포 푸드엔터테인먼트 영상, 로컬 관광 축제·행사 등 23개 세부 과제도 발굴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한 영산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영산포 지역 도시재생, 남도음식거리 조성 등 연계사업과의 연계 효과를 기대한다"며 "속성 흥어 등 차별화된 먹거리와 천혜 경관을 갖춘 영산강, 풍부한 근대문화유산 등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통해 영산포 전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에서 처음 따보는 바나나' 체험 함평나비대축제가 열리는 함평엑스포공원 친환경농업관을 찾은 어린이가 '함평에서 처음 따보는 바나나' 체험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오전 11시와 오후 3시에 4~13세 어린이 등이 선착순 체험(무료)할 수 있다.

11일·25일 '담양 햇빛 가득 육아·중고마켓'

이웃과 육아용품 나눠쓸 수 있는 '담양 햇빛 가득 육아·중고마켓'이 오는 11일과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담양문화회관(담양읍)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담양군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하나로 마련했다.

육아 비용을 줄이고 경험을 주민들과 나누기 위

해 장난감, 책, 옷, 공예품 등이 장터에서 선보여진다.

이 밖에도 풍선 마법과 비눗방울 공연이 펼쳐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에어-워터바운스 놀이 공간이 마련된다.

담양군은 육아·중고물품 등 비록장터 참가 15개

팀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담양군은 공간과 현수막을 제공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용 기간이 짧고 가격은 비싼 육아용품 특성상 매년 구매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가정의 육아비용을 줄이고 이웃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행사를 열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나주시 '가정의 달' 맞아 '찾아가는 놀이터' 곳곳 운영

4일 빛가람동 호수공원 시작 6월까지 남평읍 등 7차례 찾아

나주시가 아동의 놀 권리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놀이터'를 곳곳에서 운영한다.

나주시는 오는 4일 빛가람동 호수공원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놀이터 '너랑 나랑 함께 놀이(nori)'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놀이터에서는 또래 친구들과 마음 열기 놀이, 상호교감 놀이, 나무 놀이감 활용 오감 체험 놀이터 등을 즐길 수 있다.

처음 찾아가는 놀이터는 4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리는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어린이와 어른, 장애인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놀이가 마련된다.

놀이터를 찾는 누구나 휴식용 의자(빈백)를 이용할 수 있다. 나주시는 아동 권리 활용 공간을 마련해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큰잔치 이후에는 6월 남평읍, 대호동, 나주 이화학교, 빛가람동 일원에서 총 7차례 놀이터를 운영한다.

나주시는 권역별 찾아가는 놀이터를 운영하기 위해 이달 중 참가 아동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는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아이들은 물론 온 가족이



지난해 나주시가 운영한 '찾아가는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으니 마음껏 놀다 가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아동의 권리 증진은 물론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나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

했다.

나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 나주 어린이 나눔장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상상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흥 용산면에 벼 자동화 육묘장 준공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장흥 농촌에 벼 자동화 육묘장(사진)이 준공됐다.

장흥군과 용산농협은 지난 29일 '용산농협 벼 자동화 육묘장'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지역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육묘장은 사업비 6억1500만원 투입해 6680㎡ 규모로 지어졌다. 육묘실(660㎡)과 작업장(300㎡), 녹화시설(5720㎡)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용산면 벼 재배면적의 37%인 330ha에 육묘 공급을 할 수 있다.

육묘장 설치는 그동안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육묘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 농가의 숙원 사업이었다.

장흥군은 고품질 벼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육묘 시스템을 갖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히 모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농촌 일손 부족 해결과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지난해 열린 강진군 '여성 취·창업교실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강진군 여성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32명 모집

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강진군이 '여성 취·창업교실 요양보호사 자격증반'을 운영한다.

자격증반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거나 전자우편(kazuya0806@korea.kr)으로 받는다.

강진군은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32명을 대상으로 강진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교육을 펼친다.

오는 20일 개강한 뒤 매주 월-금요일 하루 8시간씩 이론·실기·현장실습 등 총 320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수강생들은 교육을 받은 뒤 자격증 시험을 보면 된다.

강진에 사는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 중 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실직자,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등)이나 취·창업 교육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은 이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자격증 취득 수강료의 37.5%를 보조한다. 출산·육아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해마다 자격증반을 운영해왔다. 바리스타와 재난안전지도사, 요양보호사 등이 지원반에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 누리집(gangji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강진군 군민행복과 여성친화팀(061-430-3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황룡강변 파크골프장 A구장 재개장

장성군은 황룡강변 파크골프장 A(에이)구장(사진)이 8주간 휴장을 마치고 이달부터 재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A구장은 황룡강변 9978㎡ 부지에 9홀 파크골프장과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로 구성됐다.

장성군은 휴장 기간 잔디를 관리하고 구장 평탄화, 시설물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파크골프장은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는 파크골프 연습장 비(B)구장이 휴장 기간을 갖고 잔디 생육과 시설 정비에 들어간다. 파크골프장 이용 관련 문의는 장성군 체육사



연구소(061-390-8480)로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